

구 오시마 저택에 어서오세요!

~Welcome to the Former Oshima Residence! ~



~구 오시마 저택~

영업시간 :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까지

휴 간 일 : 월요일 / 12월29일 ~ 1월3일

요 금 : 무료

주의 사항

-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
- 전시물에 손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.
- 시설내 다 금연 (정원 및 주차장 포함)
- 촬영은 가능합니다.

구 오시마 저택에 대해

구 오시마 저택은 가라쓰 근대화에
진력한 大島 小太郎(오시마 코타로)의
옛 주택입니다.

그의 다양한 공적은 메이지시대
초기부터 쇼와시대 초기에 걸쳐서
넓어졌습니다.



1893년에 지어진 본
저택은 원래 여기서 약
300미터정도 서쪽에
있었습니다.
하지만 초등학교 건설에
따라 해체가 되어
2017년에 현재 위치에

이축되어 복원되었습니다.

오시마 코타로 약력

1859 년 코타로는 오시마가(大島家)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. 아버지인 興義(오키요시)는 에도시대 말기 가라쓰번에서 번 재정을 통괄하는 중신을 맡았습니다. 또 오키요시는 전통적인 일본 종이나 어시장을 경업하고 재(財)를 이루었다고 합니다. 1871 년에는 가라쓰번 영어 학원인 耐恒寮(다이코료)가 설립되었습니다.

제 1 기생으로 입학한 코타로는 여기서 다카하시코레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.

입학하였을 때 코타로는 고작 11 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고, 학생 중에서도 단연 막내였습니다.

*다카하시코레쿄...제20대 내각
총리대신
어린 나이부터 다이코료에서
영어교사로 초대받아 영어를
가르쳤다.



코다로의 공적

耐恒寮(다이코료)를 졸업한 코다로는 1872년에 도쿄에 올라갔습니다. 二松学舎(니쇼가쿠샤)나 三菱(미쓰비시) 상업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. 하지만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883년, 아버지의 부름으로 경영이 악화된 어시장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고향인 가라쓰에 내려왔습니다. 아버지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수산 회사를 일으켜 세운 코다로는 1885년에 현재의 사가 은행 전신인 가라쓰 은행을 설립하였습니다.



그 후 코다로는 철도회사나 전력회사를 설립하는 등 가라쓰에서 다양한 공적을 남깁니다. 1934년에 가라쓰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었을 때는 고문이라는 직책을 맡기도 하였습니다. 1947년 12월 17일 코다로는 88세로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.

저택내에 대해서

현관



현관 입구에는 “大(대)”라는
문자와 3마리의 나비
가문이 있습니다.

훌륭한 입구를 봐도
아시다시피, 이 건물은
엄격한 무가 주택 양식에
따라 건축되었습니다.



운치 있는 분위기를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.

다다미 8장의 응접실

이 방은 원래 응접실로 사용되었습니다. 기둥은 빈랑입니다.

방의 맞은 편 오른쪽

안쪽으로 들어가면 일식

화장실이 있습니다.

도자기로 만들어졌지만

어떤 도자기인지 자세한

것은 모릅니다.



이 방에는 역사 깊은

장벽화가 있습니다.

벚꽃과 제비를 소재로 한

이 그림은 가라쓰번 용무

화가인 長谷川雪塘

(하세가와셋토)가 그렸다고 합니다.

구기카크시

구기카크시란 친 못을 숨기기 위한 장식품입니다. 구 오시마 저택내에는 5종류의 구기카크시가 있습니다.

- 제비붓꽃
- 마름
- 단풍나무
- 기러기
- 학



그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제비붓꽃입니다. 이 구기카크시는 저택 내에 2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

다다미 15장의 방

“大座敷(오자시키)”라고도 불리는 이 방에는 집 주인이 살았다고 합니다. 이쪽의 방에도 장벽화가 있습니다.



장벽화의 소재는 국화에 참새이고 가라쓰 번의 용무 화가인 하세가와셋토가 그렸습니다.



▲ 약 130 년이 지난 현재도 생생한 표정을 보여 줍니다.

따진 내장(内装)

다다미 15 장의 방을 면한 복도는 소나무 단 1 그루만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.

약 10 미터인 소나무

하나만으로 만든 긴

복도는 굉장히 특이하고

귀중한 것입니다.



다다미 8 장 방, 10 장 방, 15 장 방을 면한 유리창은 건설 당시 사용한 유리를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. 유리에서 보이는 경치가 왜곡되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.



▲ 창에서 사계절마다 다른 다양한 경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

다실 (다다미 4.5 장 방)

이 방은 전통적인 다실 양식에 따라 지어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실동은 별채처럼 되어 있어 기둥에는 흑단(黑檀)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. 특징적인 벽은 배롱나무를 사용하였습니다.



또, 다실동에는 기타 다다미 6장 방, 다다미 3장 방이 있습니다. 다다미 6장 방 기둥은 적송 소나무로 되어, 어느 방도 다회(茶會:차를 마시는 모임)시에는

다실이나 대기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불단 방



이 방에는 불단(仏壇(부쓰단):일본의 절과 가정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종의 조그만 사당)이 있습니다. 이 불단은 현재에는 드물고 방에 설비된 것입니다.

이 방 기둥에도 배롱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.



기다

- 정원 중앙에 있는 네모진 것은 창고터입니다.
- 코다로는 돌이나 나무를 좋아했기 때문에 정원 내에는 많은 돌이나 나무가 있습니다.

사계절을 즐긴다



정원 내에는 다양한
나무나 꽃이 심어져
있어 계절에 따라
다양한 풍치를
즐기실 수
있습니다.

그 중에서도 다다미
15장 방을 면한 창에서
보이는 풍경은 매우
아름답습니다. 특히 신록
시기에는 푸른 하늘과
초록 나무들이 한데



모여 싱그럽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.

가을이 되면 단풍이
일제히 물들기
시작합니다. 전통적인
일본 가을 풍경을
즐기시길 바랍니다.



정원에 심어져 있는
대부분의 나무나 꽃은
이축하기 전 정원
내에 있던 것입니다.
가능한 한 이전과
똑같은 장소에 옮겨
심어지고 있습니다.

본문 사진 편집 : 구 오시마 저택 직원

川口 愛生(가와구치 메이)

번역 : 가라쓰시청 관광문화시설과 시설관리 담당자

柳 遼太 (야나기 료타)

2023 년 6 월 작성